

현대중국어 受動文(被動文)의 특징에 관한 유형론적 접근

안기섭*안선하**1)

차 례

- I. 수동태의 정의와 유형학적 특징
- II. 수동태의 형태·통사적 특징
- III. 수동태와 관련된 몇 가지 하위 범주
- IV. 수동태의 다양한 실현 형식
- V. 수동문의 주어와 행동주
- VI. 수동태의 기원과 발달
- VII. 나오는 말

I. 수동태의 정의와 유형학적 특징

이 글은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현대중국어(現代漢語) 受動(被動) 의미 전달 체계의 특징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서구 언어학에서 마련된 태(voice) 및 수동태(passive voice)의 정의와 특징을 개괄한다. 다음으로 수동태와 관련된 몇 가지 하위 개념 범주를 다룬다. 나아가 수동태의 다양한 실현 형식에 비추어 중국어에서 수동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 방면의 성격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angiseb@hanmail.net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2006년부터 BK사업(광주·전남 대 중국 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수동문의 주어와 행동주의 관계, 수동태의 기원과 발달 등도 참고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동(피동)'과 관련된 현대중국어 문법 범주 설정의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글의 유형론적 비교의 틀은 '세계 주요 9개 언어의 유형론적 비교 연구'[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 지원 사업 과제 KRF2003-074-AM0018] 수행 시(3년간) 정기적으로 개최한 공동 세미나에서의 연찬 결과에 힘입은 바 큼을 밝혀 둔다.

1.1 수동태의 정의

태(態, voice)란 명사구의 의미적 역할이 통사적 기능으로 실현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Huddleston & Pullum, 2002: 1427) 능동태는 행동주가 주어로 나타나고 수동주(피동주)가 목적어로 나타나며, 수동태는 피동주가 주어로 나타나고 행동주는 사격으로 나타난다. 영어의 'voice'는 '음성'이라는 말인데, '발화, 표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능동태(active voice)·수동태(passive voice)는 '능동적 표현, 수동적 표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독일 학계에서는 태를 'Genus Verbi' 혹은 'Diathese'라고 부른다. 'Genus'란 원래 종류라는 뜻으로 문법에서는 주로 명사의 성(性)을 나타내며 영어의 'gender'도 그 유래가 같다. 그러므로 'Genus Verbi'란 원래 동사 혹은 동작의 종류라는 뜻으로서 '동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Diathese'는 영어로 'Diathesis'이다. 이는 '배치(disposition), 배열(arrange)'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용어로서²⁾ 명사구의 배열에 초점을 맞춘 용어로 보인다.

수동태는 영어에서 행동주가 주어로 나타나고 수동주가 목적어로 나타나는 능동문에 대하여, 수동문이 대체로 '수동주+be동사+pp[동사의 과거분사형]+(by 행동주)'라는 형식에 의해서 표현되고 여러 유럽어들이 비슷한 틀을 보임으로 인하여 설정된 문법 범주의 하나이다.³⁾

2) 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1980).

3) 수동태와 관련된 전통적인 견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통 행위자가 주어로 오는 능동태에 대해 수동태란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되는 태(voice)를 말한다.(Keenan, 1976a: 255) 행위의 영향을 받는(affected) 대상이 주어가 되는 경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Shibatani, 1985, Sec. 7; Klaiman, 1988: 27) 19세기 독일의 언어학자 Gabelentz(1861: 455)는 수동태를 '언어의 사치(Luxus der Sprache)'라고 주장한 바 있다.[수동태가 의미적으로

중국어에서는 의미상 영어의 수동태에 해당되는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흔히 ‘被動文(被動句)’이라 부른다. ‘被動’은 ‘受動’의 다른 표현이다. ‘태(voice)’라는 용어로 수용해 온 종래의 용어 체계에 따르면 ‘수동문’이 될 것이다. 이 글의 제목 가운데서는 ‘수동(피동)’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의 총칭으로 ‘수동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 글은 현대중국어의 수동문(=피동문,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기로 함) 가운데 어디까지 문법 범주화 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둔 유형론(typology)적 관점의 글이므로 ‘수동태’라는 용어 용어를 사용하되 그것이 문법 범주의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임에 유의하여 선별적으로 사용하며, 한편으로 ‘수동문(피동문)’이라는 용어와 차별성을 갖게 한다.

한국어는 동사의 의미 자체에 수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수동문은 ①타동사에 수동보조어간을 사용하는 경우, ②타동사의 어미 ‘~하다’·‘~시키다’ 대신 ‘~되다’를 사용하는 경우, ③‘(~하여) 지다’ 등의 보조동사를 부가하는 경우, ④‘(~에게/~에 의해) (을/를) 당하다/입다/받다/보다’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크게 나뉜다. 수동보조어간을 사용하는 예는 ‘뉘다-뉘이다, 먹다-먹히다, 열다-열리다, 감다-감기다’ 등이다. 어미를 ‘~되다’로 바꾸는 예는 ‘검증하다-검증되다, 안정시키다-안정되다’ 등이다. 보조동사를 사용하는 예로는 ‘쏟다-쏟아 지다, 닦다-닦여 지다, 전하다-전해 지다’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에게, ~의해) 사기를(속임을) 당하다, 손해를 입다(보다), 놀림을 받다, 사람을 받다’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어에서 ‘수동태’를 문법 범주로 설정하는 경우, 동사의 형태 변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식의 수동 표지가 있는 셈이 된다. 한편 이들 표지는 수동 표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서 체계를 기술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수동보조어간은 ‘늘다-늘이다(늘리다), 눕다-눕히다, 울다-울리다, 숨다-숨기다’ 등과 같이 모두 사동(사역)보조어간으로도 쓰인다.

능동태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언어에서 없어도 되는 범주라고 보아서이다.]

인도-유럽어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능동태/중간태(active/middle)가 기본태(basic voice)이며 수동태는 파생태(derived voice)이다.(Siewierska, 1984: 163; Klaiman, 1988: 27; Klaiman, 1991: 23f) 에켄데 고대 그리스어나 산스크리트어의 경우 능동태/중간태의 구별이 기본이다. 그래서 Jepsen(1965: 164ff)은 수동형을 태가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

Perlmutter & Postal(1983)은 능동태와 비교할 때 수동태(personal passive)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어순의 변화, 격표시의 변화, 동사형태의 변화 등 세 가지로 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수동태를 정의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2 유형학적 특징

○현대중국어 수동문의 형식 대별 :

(1) 의미상의 수동:

수동주(피동주) + 술어동사 + 부가성분 [※행동주가 없음]

(2) 수동 표지가 있다고 여겨온 수동 :

수동주(피동주) + 수동표지 + 행동주 + 술어동사 + 부가성분

※수동 표지 : 被·讓·叫·給·爲 등.

중국어의 수동문의 핵심은 수동주와 행동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미상의 수동문에서 술어동사는 능동문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를 보이므로 전적으로 중립적이다. 수동표지가 있다고 여겨온 수동문의 경우도 행동주의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 또한 동일하므로, 소위 '수동표지'가 부가하는 의미에 의해서 수동 의미가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 '수동표지'로 여겨온 일군의 단어의 의미가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은 한국어에서 보조동사가 수동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과 흡사하다.

수동문은 의해 술어동사의 행위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대중국어의 수동문에는 흔히 완료·경험·지속 등을 나타내는 조사나 결과·방향·정도 등을 나타내는 보어가 술어 뒤에 부가된다.

玻璃打碎了。(우리가 깨졌다.)

文章已經好了。(글이 이미 다 되었다.)

畫掛在牆上。(그림은 벽에 걸려있다.)

失去的東西拿回來。(잃어버린 물건은 되가져왔다.)

黑板擦得很干淨。(칠판이 아주 깨끗이 닦여 있다.)

의미상 수동문의 행동주는 대부분 보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보충할 수 있는 경우 행동주 앞에 사용될 수 있는 표지는 '被'이다. 여기에 '讓·叫·給·爲'는 쓰지 못한다. 이는 이들 '수동표지'군의 개별 의미에 의해 수동의 주체와 객체, 즉 수동주와 행동주 간의 관계가 구체화됨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들 수동표지들 간에 성격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통사 구조 또한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수동표지'군의 문법화의 여부 내지는 정도의 문제에 속한다.

玻璃被猫打碎了。(우리가 고양이에 의해 깨졌다.)

II. 수동태의 형태·통사적 특징

중국어는 형태변화가 없는 언어이다. 한 문장에 쓰인 단어 간의 의미상의 상관관계에 의해 문이 형성된다. 수동문에도 형태표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의 특징은 어순의 안정성과 어휘 의미의 통사적 가변성을 들 수 있다. 즉, 어순이 바뀌면 뜻이 바뀌거나 非文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같은 어순을 지니면서도 능동문인 경우와 수동문인 경우가 다 있다.

2.1 어순의 변화

수동태의 문법 표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관찰되는 언어에서는 능동태의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수동태에서 바뀌는 것이, 많은 언어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중국어는 각 문장성분에 해당되는 단어와 구의 종류 면에서나 주어와 목적어가 술어와 맺는 의미영역 면에서도 구미의 언어와 많이 다르다. 수동문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통사상 주어·목적어와 동사술어 간의 의미 관계가 영어의 행동주·수동주 및 직접목적어·간접목적어라는 관계에 그치지 않고 그 밖의 여러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평행하게 중국어에서 능동문이 모두 수동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동문의 행동주와 수동주의 위치가 수동문에서 바뀜으로써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수동문의 전부도 아니다. 이 때 수동주와 행동주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여러 가지인 것도 특징이다.

중국어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뀌어도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능동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1. 那條狗咬小孩子了。(그 개가 아이를 물었다.)(능동문: 행동주(狗), 수동주(小孩

子)]

a2. 小孩子咬那條狗了。(아이가 그 개를 물었다.)[능동문: 행동주(小孩子), 수동주(狗)]

‘被’를 사용한 수동문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b1. 小孩子被狗咬了。(아이는 개가 뿜을 입었다[당했다]→개에게 물렸다)

[수동문: 행동주(狗), 수동주(小孩子)]

b2. 狗被小孩子咬了。(개가 아이가 뿜을 입었다[당했다]→아이에게 물렸다.)

[수동문: 행동주(小孩子), 수동주(狗)]

2.2 격표시의 변화

중국어의 수동문에 격표시의 변화는 없다. 다른 언어에서 수동태의 또 한 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능동태와 격표시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능동문의 목적어는 수동문에서 주격이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수동문에서 사격(斜格)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어를 관찰하면,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 능동문의 목적어가 수동문에서 주격이 되는 것은 영어나 한국어 수동문의 일반 형식과 같으나 격 변화는 없다. 수동문으로 바꾸었을 때의 능동문의 주어는, 그 격을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으나, 지금까지의 기술체계에 의하면 주로 전치사(개사[介詞])의 목적어[목적격]가 된다.

중국어의 수동주는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고 행동주는 수동표지로 여겨온 ‘被’ 등의 뒤에 위치한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기술 체계에서는 ‘被’는 전치사요, 뒤의 행동주는 이것의 목적어로서 이 전치사가 술어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다고 하였다.

이 기술은 바꿀 수 있다. ‘被’ 뒤의 행동주는 생략되기도 하기 때문에 ‘행동주+동사(구)’ 전체를 ‘被’의 목적어로 취한다고 하는 것이 ‘被’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때 ‘被’의 품사 규정이 달라진다. 동사이다.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수동문의 형식도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격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이나, 무표 상태로 주격·대격(직접목적어)·여격(간접목적어) 등을 나누어 볼 수는 있을지언정(他教我漢語; 그는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⁴⁾ 격표시의 변화에 상응하는 수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어휘 의미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수동문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被’ 등이 없이 수동 의미를 전달할 때는 수동주가 주어라 되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의미상 수동주가 ‘把’의 목적어가 되어 술어 앞으로 처치되는 경우이다. 이 때 ‘把+수동주’는 ‘개사+목적어’로서 부사어라는 기술 방식이 주류가 되어 왔다.

‘被’ 등이 쓰여서 수동문을 형성할 때는 수동주(피동주)가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고, 행동주는 ‘被’ 등의 뒤에 위치한다. ‘被’ 등을 수동표지로 여겨온 종래의 기술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영어의 전치사에 상응하는 품사(개사 : 영어의 전치사 ‘by’에 착안함)로 분류하고, 행동주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처리해 왔다. ‘被+행동주’를 술어의 전치 성분으로서 부사어로 기술했던 것이다. 그런데 ‘被’ 뒤에 행동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행동주가 수반되는 경우와 기술 체계상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동사’라고까지 부르는 사례도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통일성 있는 체계에 의해 기술을 바꿀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은 이상의 설명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他打開窗戶了。(그는 창문을 열었다.)

窗戶打開了。(창문이 열렸다.) [수동주: 窗戶, 행동주: 他]

窗戶被他打開了。(창문이 그에 의해 열렸다) [수동주: 窗戶, 행동주: 他]

他把窗戶打開了。(그는 창문을 열었다) (수동주=목적어)

黑板擦得很乾淨。(칠판이 아주 깨끗이 닦여 있다.) [수동주=주어]

중국어에서 ‘把’를 써서 수동주를 앞으로 끌어낸 경우는 열려진 대상을 전달하는 데 의미의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지가 수동에 있지 않다.

중국어에서는 행위의 대상을 전달하는 데 의미의 초점이 있으면 행위의 대상을 주어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행위자는 생략한다. 행위자를 전달하는 데 의미의 초점이 있으면 본시 ‘입다(당하다), 시키다(←양보하여 하게 하다←양보하다), 시키다(←불러 하

4) 안기섭, 중국어의 격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2005. 10) 참조.

게 하다(←부르다), ~해 주다(←주다), [~한 바가(~한 상황이)] 되다' 등의 의미를 지닌 '被, 讓, 叫, 給, 爲' 뒤에 행위자를 두어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수동 의미가 구체화된 문의를 형성한다. 이것들의 어휘 의미와 다른 단어들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본시 각각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에 의거하여 종래 수동표지로 여기고 현대중국어의 수동문을 다양한 수동표지가 있는 문법 범주로 설정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던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행동주(施事)나 수동주(受事)가 모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놓일 수 있다. 현행 중국어문법에서는 '被·讓·叫·給·爲' 따위가 수동표지로 쓰인다고 기술한다. 그런데 사실 이들 단어들의 개별 의미에는 차이가 있고, 완전히 허화된 문법 표지로서 공통된 기능을 하는 상이한 형태(어음)로 보기는 곤란하다. 被(/bèi/ 입다, 당하다), 讓(/ràng/ ~로 하여금 ~하게 하다), 叫(/jiào/ ~불러서(시켜서) ~하게 하다), 給(/gěi/ ~에게 ~해 주다), 爲(/wéi/ ~한 것이 되다) 등의 의미에 의하여 전체 문의상 수동이 성립된다. 기능상 문법화(허화)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讓·叫'는 영어의 사역동사가 형성하는 제5형식과 유사한 어순으로 수동의 의미를 전달한다. [~로 하여금 ~하게 하다(~하게 한 것이 되다)]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兼語(式)文이라고 부른다.] '給'는 수여의 의미를 바탕으로 문맥에 의해 '~에게 ~하게 해준 것이 되다'를, '爲'는 뒤의 동사 또는 동사구를 목적으로 취하여 '(~가) ~한 것이 되다'의 의미 맥락을 구성하여 수동의미를 전달한다.

2.3 동사형태의 변화

Haspelmath(1990: 27ff)는 기본적으로 수동 형태소가 없는 일은 없다고 보고, Durie(1988)와 Hashimoto(1988)을 인용하여(8-9)의 아케니스어와 중국어의 경우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중국어의 경우는 '被/bèi/'를 수동표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어의 '被'를 동사로 보느냐 전치사로 보느냐에 따라 수동문을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수동문의 전체 체계를 바르게 보면 수동형태소 운운하는 것은 다소 우스운 일이 된다. 현행 중국어문법에서는 '被'를 주로 피동표지의 하나이며 전치사(介詞)라 여기고 있으나, 동사로 보는 것이 더 낫다. 행동주가 생략된 경우의 해법과 일관성을 지니는 기술 체계가 되기 때문이다. 즉, '被+목적어(동사[구]) 또는 주술

구의 형색을 취함)'의 구조로 보는 것이 그 대안이다. 다른 표지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어에는 형태변화가 없으므로 영어나 한국어와 같이 동사의 형태 변화에 의해 수동태를 형성하는 언어가 아니다. 현행 중국어문법에서 피동표지로 여기는 '被, 讓, 叫, 給, 爲'가 행동주 앞에 놓이고 그 뒤에 행위의 내용을 나타내는 동사가 따른다. 이들 표지가 있는 수동문은 모두 수동주가 주어의 자리에 놓인다.

○수동 표지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 :

他被汽車撞傷了。(그는 자동차에 부딪혀 다쳤다.)

← - 자동차가 부딪혀 다치게 함을 입었다.)(수동주: 他, 행동주: 汽車)
小張讓他給氣哭了。(張군은 그로 인해 화가 나서 울었다.)

← - 그로 하여금 (장군이) 화가나서 울어 주게끔 하게 했다(~한 꼴이 되었다).

[수동주: 小張, 행동주: 他]

他叫狗咬了一口。(그는 개에게 한 입[번] 물렸다.)

← - 개로 하여금 한 입 물게 한 것이 되었다.)(수동주: 他, 행동주: 狗)
老王給爆炸聲吵醒了。(왕형은 폭죽 소리에 깨어났다.)

← - 폭죽 소리에 깨어나 주었다(깨어나 준 것이 되었다.)

[수동주: 老王, 행동주: 爆炸聲]

형태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수동표지로 여겨 온 이들 단어조차 쓰이지 않고, 주어 뒤에 수동의 내용이 되는 술어만 놓여 수동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의미상의 수동이라고 여기는 경우 :

信已經寫好了。(편지가 이미 다 쓰여졌다.)(수동주(信))

電影票賣完了。(영화표가 다 팔렸다.)(수동주(電影))

黑板擦得很乾淨。(칠판이 아주 깨끗이 닦여 있다.)(수동주(黑板))

畫掛在牆上。(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수동주(畫))

玻璃打碎了。(유리가 깨졌다.)(수동주(玻璃))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被'와 수동주를 추가하여 수동문을 만들 수도 있으나, 대개는 '被' 등을 첨가하면 非文이 된다. 이는 중국어가 본시 아무런 표지 없이 (능동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에 의해서만으로 수동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임을 알게 한다.

수동문은 행동주의 동작행위가 이미 수동주에게 미쳤거나 미칠 것을 전제로 한 문장이다. 때문에 중국어의 수동태는 술어동사 뒤에 모종의 부가성분(조사 '了', 결과보어, 정도보어 등)이 첨가되기 마련이다. '寫 : 쓰다-쓰이다' '賣 : 팔다-팔리다' '擦 : 닦다-닦이다' '掛 : 걸다-걸리다' '打碎 : 때려 부수다-때려 부수 지다'와 같이 각 동사의 능동과 수동 의미는 다른 어휘와의 문맥 관계에 의해 나타난다. 동사에 기본적으로 자동과 타동의 구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Ⅲ. 수동태와 관련된 몇 가지 하위 범주

인도-유럽어족의 언어는 동사의 형태변화인 굴절이나 어순 및 격의 변화 등에 의해 수동태를 형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어는 형태변화가 없이 단어 의미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수동 의미를 나타내거나 수동주와 행동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수동 의미를 전달한다. 수동문의 경우도 중국어의 고립어적인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개별언어에 따라 수동태는 인칭수동태, 비인칭수동태, 중간태, 반수동태, 수용태, 영향태 따위의 하위 범주를 갖는다. 수용태란 문장의 주어가 동작(행위)을 받는 것을 말하고 영향태란 주어가 동작(행위)을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글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어에 '수동태'라는 문법 범주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그러나 '수동태'라는 문법 범주가 상대적으로 보다 분명한 언어에서 추론해 낸 이들 하위 범주의 내용을 굳이 끌어들인다면 중국어의 수동문은 '인칭수동태'와 '수용태'에 상응하는 내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3.1 인칭수동태(personal passive)와 비인칭수동태(impersonal passive)

'수동태'의 존재가 인정되는 언어에서 인칭수동태란 타동사의 수동주(목적어)가 주어 되고 동사의 행동주(주어)는 사격(斜格, 으로 나타나는 태를 말한다. 중국어의 '被' 등을 수동표지로 보아 온 기술 체계 하에서 보면 이것들이 인칭수동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인칭수동태에 상응하는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예는 중국어에 당연히 없다.

收音機 [被他] 修好了。(라디오가 그에 의해서 잘 고쳐졌다.)

他 [叫狗] 咬了一口。(그는 개에게 물렸다.)

我 [被 這個 故事] 給 感動了。(나는 이 이야기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

← - 이 이야기가 감동을 줌을 입었다.)

房間 都 [讓 我們] 給 收拾 好了。(방은 모두 우리들에 의해서 잘 정리되었다.←
- 우리로 하여금 잘 정리해 주게[놓게] 하였다.)

漢語詞典 [被 孩子] 給 拿 走了。(한어사전은 아이가 가져갔다.)

← - 아이에 의해 가져가졌다. ← - 아이가 가져가 줌을 입었다(당했다).)

我 [被 這個 故事] 所 感動。(나는 이 이야기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

← - 이 이야기가 감동 준 바를 입었다.)

[※ 這個故事所感動 : 이 이야기가 감동시킨 바(명사구)]

敵人 [爲 我] 所 敗。(적이 우리에게 패했다. ← - 우리가 패배시킨 바가 되었다.)

[※ 我所敗 : 우리가 패배시킨 바(명사구)]

這種藝術形式 [爲 廣大人民] 所 喜聞樂見。(이런 예술 형식은 많은 국민들이 즐겨 듣고 보는 바가 되었다.)

[※ 廣大人民所喜聞樂見 : 국민들이 즐겨 듣고 보는 바(명사구)]

我 [被] 感動了。(나는 감동을 받았다(입었다)/감동되었다.)

虫子 都 [給] 消滅 光了。(벌레가 모두 깡그리 소멸되었다. ← - 깡그리 소멸되어 주었다.)

3.2 기타 하위 범주들

중간태(middle voice)는 재귀표지와 같은 형식, 재귀표지에서 발달하여 형태가 약화된 경우, 재귀표지와 어원이 다른 경우 등으로 구별되는 하위 범주이다. 중국어에는 없다. 반수동태(antipassive)도 이를 것이 없다.

타밀어(Tamil)에 보이는 수용태(affectum)와 영향태(effectum)] 같은 특수한 태 또한 중국어에는 비추어 볼 의미가 없다.

IV. 수동태의 다양한 실현 형식

현행 중국어문법에서 말하는 수동문(피동문)의 형식은 크게 의미상의 수동과 피동표지에 의한 수동으로 나뉜다.

4.1 비우언적 수동(non-periphrastic passive)

수동문에 있어서 비우언적 수동이란 수동태가 동사의 형태변화로 실현되는 경우를 말하며, 동사 자체에 합성되어 나타난다고 해서 합성적(synthetic) 유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어 수동표지의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수동문에 있어서도 중국어는 어순과 단어 간의 의미 맥락(문맥)이 중요하다. 수동표지로 여겨온 ‘被, 讓, 叫, 給, 爲’ 등 가운데, 개별 단어의 의미에 근거해서 보면 수동적 의미를 직접 전달하는 단어는 ‘被’(입다[당하다])와 ‘爲’(되다) 뿐이다. 현행 중국어 문법 기술 방식의 주류를 따라 ‘被’를 행동주를 이끄는 介詞(전치사)로 분류하면, 술어가 모두 아무런 형태 변화도 없이 수동문을 구성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被’를 전치사로 보는 것보다 동사로 보는 것이 중국어 전체 수동 의미 체계 기술에 더 적합하다고 여긴다. 즉, ‘被, 讓, 叫, 給, 爲’ 등이 ‘행동주+동사(부가성분 포함)’(‘爲’는 ‘행동주+所+동사’인 경우도 포함함) 또는 ‘동사(부가성분 포함)’를 목적으로 취하여 해당 행위 주체의 행동을 받거나(입거나, 당하거나), 수동주가 시켜서 그리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수동주가 어떠한 행위를 해 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거나, 누군가가 수동주에게 어떠한 행위를 가한 결과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어, 결

국 공통적으로 수동 의미가 전달되나, 각기 차별성을 구비하고 있다. 이는 이들 단어가 지니는 개별 의미에서 비롯된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통사상의 구조에 관한 기술도 적절하게 바뀌어야 한다.

4.1.1. 수동적 동사(passival verbs)

수동적 동사란 원래 자동사이면서 동사 자체가 수동적 의미를 지닌 경우를 지칭한다. 한국어의 '속다, 맞다, 들키다' 같은 동사가 그 예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어의 문장성분은 영어나 한국어와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술어 방면에서만 보더라도, 앞에서 든 의미상의 수동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능동문과 수동문에 동일한 동사(형용사 포함) 또는 동사구가 쓰인다. '寫 : 쓰다-쓰이다' '賣 : 팔다-팔리다' '擦 : 닦다-닦이다' '掛 : 걸다-걸리다' '打碎 : 때려 부수다-때려 부쉬 지다' 등이 그것이다. '受'·'冒' 등과 같이 한 방향으로만 쓰이는 극소수의 동사만이 수동적 동사가 가리키는 범주와 연관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중국어는 '수동태'에 관한 한, 수동적 동사와 능격동사의 구분이 불필요한 언어이다. 이처럼 중국어의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被'는 본디 '입다'를 뜻하므로 후속성분을 목적어로 받아서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된다. 그러나 '수동태'라는 문법 범주에서 말하는 '수동적 동사'의 의미를 이미 벗어나 있거나, 수동적동사가 전적으로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이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被'는 수동문에서 동작의 주체자인 행동주 앞에 놓이므로 행동주를 이끄는 허화된 표지로 (영어의 전치사 'by'의 기능에 상당하다고) 여겨왔으나, 완전히 허화된 문법 표지라고 보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있다. 행동주가 생략되고 '被'의 뒤에 동사가 바로 접속되는 경우를 설명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被'가 뒤의 동사를 목적어로 받아 그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받음(입음, 당함)을 나타내는 구조인 것이다. 행동주가 나타나 있는 경우와 한 가지 품사요 같은 기능을 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으니, '被'는 동사이며 뒤의 목적어가 '동사(구)'인 경우와 '주술구'인 경우의 둘로 나뉘는 뿐이다.

'被'字文의 주어는 의미상으로 '被'字 뒤에 오는 성분의 지배를 받으며, 대부분은 이미 실현된 사실을 서술한다. '被'의 쓰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안의 번역은 한국어에 표현 습관에 맞추어 최종 문의만을 정리한 것이다.

○주어+‘被’+목적어 A형(주어+술어+부가성분) :

他被汽車撞傷了。(그는 자동차에 부딪혀 다쳤다.)
那些資料一直被我保存着。(그 자료들은 줄곧 나에게 의해 보존되고 있다.)
收音機被他修好了。(라디오는 그에 의해 잘 고쳐졌다.)
文件被小李送到有關部門了。(서류는 이군에 의해 관련부서로 보내졌다.)
他父親在抗日戰爭時期被敵人殺害。(그의 아버지는 항일전쟁 때 적에게 살해당했다.)
樹上的花被人折去了一半。(나무의 꽃이 사람들에 의해 절반이 꺾여갔다.)
雜誌被他們借走了五本。(잡지가 그들에 의해 다섯 권이 빌려가 졌다.)
他被機器軋傷了手指。(그는 기계에 눌러 손가락을 다쳤다.)
塔頂被陽光染上了一層金黃色。(탑 꼭대기는 햇빛에 의해 황금색으로 물들었다.)

○주어+‘被’+목적어 B형(술어+부가성분)

她被派到國外工作。(그녀는 해외로 파견되어 일하게 되었다.)
大家被累得躺下就睡着了。(모두들 드러눕자마자 잠들어 버릴 정도로 피곤해 졌다.)
一張張紅紙被剪成了各種各樣的動物。(한 장 한 장의 붉은 종이가 가위로 오려져 각양각색의 동물이 되었다.)
那一片地被栽上了果樹。(그 땅은 과일나무가 심어졌다.)
我發現我的文章有多處被刪改。(나는 내 글에 고쳐진 곳이 여러 곳 있음을 발견했다.)
三年前定的計劃早已被修訂。(삼 년 전에 정한 계획은 진즉 수정되었다.)

‘被’字文은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는 수동주에 많이 쓰여서 주로 당사자가 원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 등을 당했음을 나타냈다. 점차 이러한 언어 환경 상의 경계를 벗어나 여러 방면에 두루 쓰이게 된다. 즉, 수동주가 사람이 아닌 경우와 어떠한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행위에도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의중에는 여전히 이러한 의식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이는 문맥과 문맥 밖의 언어 환

경 문제이다. . 게다가 영어에서 일상생활의 사물들을 서술하는 수동태의 문장들이 중국어에서는 흔히 '被'가 없는 능동형식으로 나타난다. 의미상의 수동문의 일부이다.

書都包好, 可以寄走了。(책이 모두 잘 포장되었으니, 부쳐 보내도 된다.)

4.1.2. 능격 동사(ergative verbs)

중국어는 형태변화가 없는 언어이고 고립어이므로 굴절형태소나 파생형태소에 의해 능격동사가 수동적 동사로 변하는 일이 없다. 행동주와 수동주의 위치 변동, 즉 어순과 의미 맥락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중국어 수동문의 주어는 언제나 수동주이다. 의미상의 수동문에서 행동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被', '讓·叫', '給', '爲' 등이 쓰인 수동문은 행위자와 행위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 능격동사와 수동적 동사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4.2 우연적 수동형(periphrastic passive)

합성적(비우연적) 수동형이 동사 안에서 문법형태소의 합성 및 결합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우연적 수동형이란 두 개 이상의 단어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수동형을 말한다. 이를 합성적(synthetic)이라는 용어에 대응해서 분석적(analytic) 수동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연적 수동형은 보조동사에 본동사를 결합한 것이 기본구조이며 그밖에도 몇 가지 특수한 형식이 관찰된다.

영어의 수동태는 본동사에 형태변화가 있고 'be'동사가 보조동사 역할을 하므로 비우연적 특징과 우연적 특징이 결합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연적이냐 비우연적이냐 만을 구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被' 등이 쓰인 수동문이 우연적 수동형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수동문 기술 방식에 의거하여 '수동주+수동표지+행동주+술어동사'의 형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被' 등은 단순히 행동주를 이끄는 영어의 'by'와 같은 성분으로 정리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우연적 수동형에 들지도 않는다.⁵⁾

5) Gabelentz(1861: 501f)가 중국어에서는 'receive, eat, see' 류의 동사들이 수동 조동사로서 사용되고 벵갈어와 드라비디어 계통에서도 'eat' 류의 동사들이 수동태 조동사로 쓰인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我 [被 這個故事] 感動了。(나는 이 이야기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
這個故事 [被 大家] 叫做 世界之作。(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불린다.)

活兒 都 [讓 他們] 干 完了。(일은 모두 그들에 의해 다 마쳐졌다.)
我們應該保持清醒頭腦 不 [爲表面現象] 迷惑。
(우리들은 깨어 있는 두뇌 상태를 유지하여 표면적인 현상에 [의해] 미혹되지 않음이 마땅하다.)

我的話 [叫 他] 聽見了。(나의 말이 그에게 들렸다.)
羊 [給 狼] 吃了。(양이 이리에게 먹혔다.)
門 [給 風] 吹 開了。(문이 바람에 열렸다.)

현대중국어에 채귀 구문에 의한 수동 형식은 없다.

언어에 따라 사역(사동) 구문이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Nishimoto(1971: 70)에 따르면 영어에서 'make', 'have', 'get' 등과 같은 조동사에 의해 사역의 의미가 우연적으로 표현되며((81) 참조), 이들은 또 수동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다((82) 참조).

중국어에서는 일반 동사로서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讓·叫'('make'류)가 사역문과는 별도로 수동표지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사역 구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후 어휘와의 의미 상관에 의해서 수동 의미를 나타내므로, 현대중국어의 이들 표지는 여전히 사역 구문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 비우연적 수동표지인 수동보조어간 '-이- / -히- / -리- / -기-' 등이 수동도 나타내고 사역도 나타내는 것은 좋은 참고가 된다. '給'('give'류)와 '爲'('become'류)도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被', '讓·叫', '給', '爲'는 각각 1류를 이루는 동사로서 중국어 수동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 된다. 중국어는 단어 간의 의미 결합 능력이 강하고 문맥 내지 언어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는 언어임이 두드러진다. 이는 '被·讓·叫·給·爲' 등의 표지가 없이도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동일한 구조에 의해서 수동이 아닌 사역을 나타내는 예들이다.

這個報告就 [讓小孫] 起草吧。(이 보고서는 손군으로 하여금 초안을 짜게

하자.)

廠長 [讓工人們] 談了各自的想法。(공장장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這件事會 [叫他] 感到十分爲難。(이 일은 그를 아주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叫他] 快來。(그를 빨리 오라고 해.)

이상은 사역문과 수동문의 차이가, 주어가 행동주냐 수동주냐에 달려 있을 뿐임을 말해 준다. “這個報告就 [讓小孫] 起草吧。”과 같은 경우는 사동문이나 수동문이나를 분간하기도 어렵게 하는 예이다. ‘이 보고서는 손군에 의해서 초안이 짜여지게 하자.’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어가 수동주냐 행동주냐를 가르기로 할 때, 매우 중립적인 경우이다. 이를 보충하는 기제는 함께 쓰인 어휘가 우선이다. 여기에서는 ‘吧’가 대표적이다. 그 다음이 문맥 내지 화자의 의중(언어 환경)이다.

개별 언어에는 ‘사역동사+채귀사’ 구문, 기동 구문(inchoative construction), ‘be + 부정사’ 구문 등에 의해 수동 의미를 전달하거나, 첨사(particle)를 써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에는 관련 사항이 없다.

V. 수동문의 주어와 행동주

5.1. 수동문의 주어

한국어, 일본어, 고대 그리스어, 영어 등은 여격으로 쓰이는 간접목적어가 수동구문의 주어로 상승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수동주(patient: 피동주)는 항상 주어의 자리에 위치한다. 다만 수동문의 종류에 ‘把’字文까지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수동표지의 종류와 부가성분의 종류에 따라 능동형의 여격이 자리의 이동에 의하여 수동형의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게 된다.

○능동형의 여격이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경우 :

他被汽車撞傷了。(그는 자동차에 부딪혀 다쳤다.)

手上讓刺兒扎了一下, 很疼。(손이 가시에 한 번 찔렸는데, 매우 아프다.)

他叫狗咬了一口。(그는 개에게 한 입 물렸다.)

老王給爆炸聲吵醒了。(왕형은 폭죽 소리에 깨어났다.)

○본시 능동형의 변환이 아닌 경우 :

晚飯已經做好了。(저녁밥이 이미 다 됐다.)

玻璃打碎了。(유리가 깨졌다.)

黑板擦得很乾淨。(칠판이 아주 깨끗이 닦여 있다.)

畫掛在牆上。(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

○행동주를 주어의 위치에 두고 수동주를 '把'에 의해 동사 앞으로 끌어내는 경우 :

小李把文件送到有關部門了。

←文件 被小李送到有關部門了。(서류는 이군에 의해 관련부서로 보내졌다.)

我把來要賬的人打發回去了。

←來要賬的人 給我打發回去了。(계산을 하려고 온 사람들은 나에게 의해 돌려보내졌다.)

5.2. 수동문의 행동주 표시

중국어의 수동문에서 행동주(actor)는 의미상 피동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수동표지가 있는 문장에서는 '被' 등의 뒤에 위치하여 그 뒤에 오는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가 된다. 동작의 주체를 나타낼 필요가 없거나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被' 뒤에도 행동주가 나타나지 않는다. '讓·叫·給·爲'는 반드시 행동주를 동반한다. 다 같이 행동주 앞에 쓰이지만 이러한 면에서도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의 품사가 동사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她 被 派到國外工作。(앞에 나옴)(행동주: 생략)

大家 被 累得躺下就睡着了。(앞에 나옴)[행동주: 생략]
 文件 被小李 送到有關部門了。(앞에 나옴)[행동주: 小李]
 手上 讓刺兒 扎了一下, 很疼。(앞에 나옴)[행동주: 刺兒]
 這件事 叫人 知道 可了不得。(이 일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정말 큰 일이다.)(행동주: 人)
 來要賬的人 給我 打發回去了。(앞에 나옴)[행동주: 我]

VI. 수동태의 기원과 발달

현행 중국어문법에서 피동표지로 여기는 ‘被·讓·叫·給·爲’ 등은 고대에도 모두 동사였다. 被는 원래 ‘이불’을 의미하는 명사, 덮는 행위에 상응하는 동사[덮다, 몸에 덧씌우다→입다]로 쓰였다. 주로 몸에 무엇을 덧씌우는 데 주로 쓰이던 ‘被’는 동사 또는 동사구를 목적으로 취함으로써 통사상의 의미 영역을 확대한다. 그래서 ‘입다’는 ‘피해를 입다’의 경우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만나다’ ‘당하다’ ‘보다’ 등으로 이해되는 수동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다가,⁶⁾ 오늘날은 전적으로 수동의미를 나타내는 목적어만을 취한다.

‘被’의 이러한 변화를 지나치게 문법화로 인식하여 전치사로 기술해 왔으나, 앞에서 말한 이유들만 가지고도 그 기술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사이다. ‘讓·叫·給·爲’ 등에 대한 이해 방식도 앞에서 논한 바와 같다.

줄고 『古代漢語 被動義 진달체계와 관련 詞의 詞性』(2000)에서 고대한어의 수동문에 대하여 일관된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현대한어의 그것과 개략적인 비교를 하는 데 매우 유용하리라 여긴다. 여기에서는 관련 서술을 생략하기로 한다.

게르만어와 로만스어에서의 우연적 수동태의 발달이나 그밖의 수동형의 기원에 대한 서술은 생략한다.

6)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보통 魏晉南北朝부터 수동의미가 출현했다고 보거나 唐代부터 수동의미가 출현했다고 본다.

VII. 나오는 말

1. 문장의 의미에 따라 능동문과 수동문을 나누기로 한다면, 동사 중심의 술어가 구성하는 문장은 형태적·통사적 특징에 관계없이 거의 모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모든 언어에 '태(voice)'가 있고 또 '수동태(passive voice)'가 있다고 말한다면 문법 범주를 설정하는 의미는 없어진다. 영어의 경우 형태적·통사적 특징이 분명하고 그 체계가 비교적 단순하여 '수동태'라는 문법 범주의 설정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다른 언어에서 영어의 수동태에 해당되는 문장의 의미를 따라 다른 언어에서 대응표현을 찾아내고 '수동태' 내지 '수동문(피동문)'이라는 틀 아래 모두 문법 범주화 한다면 개별 언어의 차이는 무시된다. 유형론적 관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바가 없게 된다. 한 언어에 존재하는 어떠한 문법 범주가 다른 언어에서는 범주 삼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지금의 문법 연구를 관찰하면 특징의 문법 범주에 대하여 매우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예의 하나가 현대중국어의 이른바 '수동문(피동문)'이다. 현대중국어에 수동태라는 문법 범주를 설정할 수 있으려면, 비록 어순·격표시·동사형태 등의 변화가 핵심이 되는 형태적·통사적 특징이 수동태를 정의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이들 특징이 갖추어 져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의 체계가 비교적 단순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것이 유형론적 고찰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동(피동) 의미가 여러 가지 복잡한 형식으로 나타날 때, 해당 언어의 수동태의 체계가 그러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문법 행위라고 여긴다. 의미상 수동의 의미를 가지지만 하면 '수동문'이라거나 '수동태'라고 한다면 수동태가 없는 언어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현대중국어의 경우 '피동문'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수동태'와 관련된 의미 유형을 문법 범주화하고 있는 것 같다. '태'에 상당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부터 그 엉거주춤한 태도를 알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왕왕 '의미상의 피동문'이라 부르는 피동문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서 전술한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현대중국어에서 '수동태'를 문법 범주화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느 선까지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글에서 중시하고자 하는 출발점은 이러하다. 중국어는 형태변화가 없는 언어이다. 한 문장에 쓰인 단어 간의 의미상의 상관관계에 의해 문의가 형성된다.

수동문에도 '형태표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사적 특징은 어순의 안정성과 어휘 의미의 통사적 포괄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의 성질, 즉 품사와 통사적 기능에 대한 접근 태도 또한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중국어에서 어순이 바뀌면 뜻이 바뀌거나 非文이 되며, 같은 어순을 지니면서도 능동문인 경우와 수동문인 경우가 다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의미상의 수동문 운운한다거나 이를 문법 범주화하려는 태도부터 바로잡고 이에 버금가는 접근 태도를 버려야 중국어의 문법적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3. 본문의 분석들에 비추어 요점을 총괄하면 이렇다. 현대중국어의 수동문은 문법 범주론의 관점에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무표'이다. 동사의 형태변화에도 격 표시의 변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어순상 수동주가 주어라 되는 것을 행동주가 주어라 된 문장에 비교하여 어순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을 수동태의 표지로 여겨 중국어에 수동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순의 변화는 술어의 형태 변화나 격변화와 더불어서만이 문법 표지로 삼을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중국어의 주어는 'subject'의 개념으로는 주어의 개념을 정하기도 어렵고 어순의 설정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중국어의 주어는 'topic', 즉 '화제'라는 매우 넓은 범주로 개념화하지 않으면 어순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수동주가 주어라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어순의 변화를 수동태의 존재를 뜻하는 문법 표지로 삼을 수 없다. 수동주가 목적어의 자리에 놓이는 문장에 상대하여 이 수동주가 주어의 자리에 놓이는 문장은 어느 언어에나 존재한다. 문제는 이것이 모두 의미상의 수동문인가 일부라도 '태'로 범주화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관건은 '태'를 범주화할 수 있는 다른 문법 표지의 유무이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어에는 없다고 여긴다.

4. 부분적으로나마 종래 '태'를 문법화할 수 있는 범주로 여겨온 것은 '被·讓·叫·給·爲'와 이것들이 구성하는 통사 구조인 것 같다. 주로 행동주를 이끄는 표지라는 관점에서였다. 그러나 이것들마저도 순수한 문법 표지라고 할 수 없다. '被·讓 / 叫·給·爲'가 구성하는 통사구조에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것들의 함의와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서로 바꿔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被·讓·叫·給·爲' 등이 아직 완전히 허화된 문법화 성분이 아님을 의미한다. '被'의 목적어 자리에 전에 쓰였던 성분이 오지 않는다거나, '讓·叫·給'가 쓰인 문장의 궁극적인 의미가 수동(피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들을 '수동태'를 나타내는 문법 표지로

볼 수는 없다. '爲'가 쓰여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에 대한 기술은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이어서 논박할 가치도 없다. 우리는 '被·讓·叫·給·爲' 등이 구비한 문장 구조는 원칙적으로 이것들이 쓰이지 않은 소위 '의미상의 수동문'과 완전히 같다고 여긴다. 이것들이 부가되면 행동주와 수동주의 관계가 부각될 뿐 아니라 각각의 의미에 따라 화자가 마음에 지니는 수동의 내용, 즉 맥락이 차별화된다. 무엇보다도 전체 중국어의 어휘 및 통사 체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법 특징인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해 두고 싶다.

5. 유형론적 관점에서 여러 언어의 수동문과 표지를 다루는 틀에 의하여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두어 '문법화 표지 지향적 틀에 의해 분석해 보았으나, 현대중국어에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칭수동태'나 '비우언적 수동' 따위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지면 관계로 다른 언어에 보이는 '하위 범주'와 '실현 형식'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개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현대중국어에서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의 이러저러한 유형론적인 특징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 글에서 도달하고자 한 목표점은 이렇다. 현대중국어에서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영어에서와 같이 문법 범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볼 때, 큰 거리가 있으므로 이제까지 '수동표지'를 주로 개사 내지 조동사로 처리하여 문법 범주화 한 것은 현대중국어의 객관적인 성격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일군의 동사가 그것이 지니는 의미에 의해서 수동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와 성격상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6. 이에 대한 다음 단계의 결론은 현대중국어 전체 체계 내에서 소위 '수동표지'가 갖는 통사적 지위를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새로이 살피는 작업에 의해 도출할 수 있는 바, 이는 다음 글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수동문(피동문)'과 관련한 기술상의 문제점 들을[주로 관련 어휘의 품사와 통사 관계임] 중국어 내부 전체 체계 속에서 구체화 하는 작업이다.

참고문헌

- 안기섭, 古代漢語 被動義 전달체계와 관련 詞의 詞性, 중국어문론집 제15호(중국어문학연구회), 2000. 10.
- 안기섭, 중국어의 격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 중국어문론집 제34호(중국어문학연구회), 2005. 10.
- 조희무·안기섭, 중국어의 주요 기본 어순과 유형론적 특징, 중국인문과학 제29집(중국인문학회), 2004. 12.
- Anderson, J. 1968. Ergative and nominativ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4:1, 1-31.
- Anderson, John M.: Auxiliary. In: Booij, Geert, Christian Lehmann & Joachim Mugdan(eds.). 2004. *Morphologie: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Flexion und Wort-bildung* Vol. 2. Berlin: Walter de Gruyter. 808-820
- Durie, M. 1988. So-called initial 1 verbal agreement in Kapampangan. *Linguistic Inquiry* 19.1: 147-54.
- Gabelentz, H. C. von der. 1861. Über das Passivum. Eine sprachvergleichende Abhandlung. *Abhandlungen der philologisch-historischen Classe der königlich sächsischen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 3, 449-546.
- Hashimoto, M. 1988. The structure and typology of the Chinese passive construction. In: Shibatani (ed.) 1988. *Passive and voice*. Amsterdam: Jon Benjamins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16].
- Haspelmath, Martin. 1990. The Grammaticization of Passive Morphology. In: *Studies in Language* 14-1. 25-72.
- Jakobsen, W. 1979. Why does Washo lack a passive? in Plank, F.(hrsg.), *Ergativity : Toward a Theory of Grammatical Relations*. New York : Academic Press.
-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 Jespersen, O. 1965. *The Philosophy of Grammar*. New York :Norton.
- Keenan, E. 1985. Passive in the world's languages. in Shopen, T.(hrsg.),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I*.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Mineo : 1980)
- Klaiman, Miriam H. 1988. Affectedness and control : a typology of voice system. In: Shibatani, Masayoshi (ed.)(1988), *Passive and Voic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25-84.
- Klaiman, Miriam H. 1991. *Grammatical Vo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shimoto, Y. 1971. Über das Passiv im Indogermanischen und im Finnisch-Ugrisch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Japanischen. Unpublizierte Dissertation der Humbolt-Universität zu Berlin.
- Perlmutter, D. M. 1984. The Inadequacy of some Monostratal Theories of Passive, in Perlmutter and Rosen(1984)(eds.), (ed.),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38.
- Perlmutter, D. M. & Postal, P. 1983. Toward a universal characterization of passivization. in Perlmutter, D.(ed.),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stal, Paul. 1986. *Studies of Passive Claus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iewierska, A. 1984. *The Passive: A Comparative Linguistic Analysis*. London: Croom Helm.

Abstract

A Typological Approach to the Feature of the Sentence Representing a Passive Meaning in Modern Chinese Mandarin

Ahn, Gi-seb & Ahn, Sun-ha

Our opinion in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1. We do not think that the system of the sentence which represents a passive meaning in Modern Chinese Mandarin is able to be considered as a grammatical category called 'passive voice(passive).' In Modern Chinese Mandarin, a passive meaning is basically presented in an active form.

2. In the aspect of morphology, we consider the words of 被, 讓, 叫, 給, and 爲 not as prepositions but as verbs. Therefore, in syntactical structure, these words bring either a word or a phrase as object. The structure of these phrases includes a simple verb phrase, 'topic(subject)+predicate,' and a noun phrase specialized as 'topic(subject)+(所)+predicate.'

3. The passive meaning of Modern Chinese Mandarin is made by linking the meaning of each word, context and language circumstance. When the words of 被, 讓, 叫, 給, and 爲 are used, the function of each word embodies the meaning of relation between patient and agent.

Key Words : Passive Meaning, Voice, Modern Chinese Mandarin, 被, 讓, 叫, 給, 爲, Patient, Agent, Verb, Preposition, Object, Meaning of Each Word, Context, Language Circumstance